

기성용 “아시안컵까지는 함께 간다”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이 국가대표 은퇴설과 관련하여 “아시안컵까지는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7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이재성(울슈타인 킬), 남태희(알두하일)의 릴레이 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지난달 세浦路 지휘봉을 잡은 벤투 감독은 A매치 데뷔전에서 승리,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날 경기는 벤투 감독의 첫 경기이자 러시아월드컵 이후 처음 열리는 A매치로 큰 관심을 모았다.

러시아월드컵 이후 국가대표 은퇴설이 불거졌던 기성용은 주장 완장을 후배 손흥민(토트넘)에게 넘겨

줬지만 경기력은 여전했다. 공격적인 통패스로 활로를 뚫었다.

기성용은 “월드컵이 끝나기 전부터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했고 지금도 그 생각이 가지고 있다”며 “새 감독님과 대화를 하며 내 생각을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오가는 게 사실 부담이 크다. 100% 몸 상태에서 대표팀에 헌신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주위 선배나 지인과의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기성용은 계속 대표팀과 함께 갈 것이다”고 했다. 기성용은 “일단 아시안컵까지는 선수들과 같이 가는 게 맞는 거 같다. 아시안컵에 갈지 모르지만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

“월드컵 끝나기 전부터 은퇴 진지하게 고려”
 “주장은 흥민이에게 가는 게 맞아...홀가분”

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경기에 대해선 “선수들이 모두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했다. 전·후반 모두 크게 나무랄 데 없었다”며 “감독님이 새로 오시면서 모두 열심히 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경기력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감독님께서 볼 소유와 세밀하게 수비하는 걸 원한다. 대단히 특별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며 “감독님께서 앞으로도 콤팩트하고 공격할 때 빠르고 세밀한 축구를 원할 것 같다”고 했다.

공격의 활로를 열었던 통패스에 대해선 “항상 하던 플레이다. 공격적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것이 내 임무다”며 “좋은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항상 내가 원하던 플레이는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소속팀 뉴캐슬에 대해선 “민족한다. 도시도 스완지보다는 낫다. 내 자리에 좋은 선수가 있어 매주 경기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때로는 경쟁에서 질 수 있다. 조금씩 하지 않아야 한다. 기회는 언젠가 올 수 있다. 오히려 경기시

간이 부족해도 내 나름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은 크게 걱정이 없다”고 했다.

주장을 손흥민에 넘겨준 것에 대해선 “홀가분하다.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주장은 흥민이에게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주장은 나라를 대표해 영향력 있는 선수가 하는 게 맞다”며 “러시아월드컵까지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많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흥민이 옆에서 잘 도와주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양종합운동장에는 3만 6000여명이 찾아 5년 만에 A매치 만원 관중을 기록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벤투 감독의 첫 A매치라는 점이 큰 흥행요소였다.

기성용은 “아시안게임을 잘했기 때문에 팬들도 많이 기대했을 것이다. 항상 대표팀 감독이 부임하면 첫 경기는 좋았다”며 “처음에는 다소 호의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고비가 온다. 선수들이 오늘 같은 마음가짐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벤투호는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칠레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갖는다.



KIA 최형우, 6년 연속 20홈런 달성

이승엽 이어 역대 두 번째

KIA 타이거즈의 거포 최형우(36)가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6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했다.

최형우는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5회말 홈런을 때려냈다.

KIA가 4-1로 달아난 5회말 2사 2, 3루의 찬스에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삼성 선발 양창섭의 4구째 슬라이더를 푼다, 가운데 담

장을 넘기는 3점포를 작렬했다.

최형우의 올 시즌 20번째 홈런이다. 이로써 최형우는 6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점령했다.

최형우는 2013년 29개, 2014년 31개, 2015년 33개, 2016년 31개, 2017년 26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6년 연속 20홈런을 때려낸 것은 이승엽(은퇴)에 이어 최형우가 KBO리그 역대 두 번째다. 이승엽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프로야구에서 뛴 2004~2011년을 제외하고 8시즌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쳤다.

뉴스

‘거포’ 박병호·이대호, 사상 첫 5년 연속 100타점 주인공 누구?



거포 박병호(32·넥센 히어로즈)와 이대호(36·롯데 자이언츠)가 나란히 KBO리그 최초 5년 연속 100타점에 도전한다.

2016~2017년 미국프로야구에서 뛰다가 3년 만에 KBO리그에 복귀한 박병호는 7일 현재 92경기에 출전해 95타점을 기록했다. 5개만 더 올리면 2012년부터 5년 연속 100타점 고지를 밟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프로야구와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한 이대호는 올 시즌 114경기에서 94타점을 수확했다. 둘 중 100타점을 먼저 달성하는 선수가 KBO리그 최초라는 역사를 쓰게 된다.

2005년 LG에 입단해 넥센으로 이적한 2011년부터 두각을 드러낸 박병호는 2012년부터 미국 진출 이전인 2015년까지 4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했다. 4년 연속 30홈런과 100타점을 동시에 달성했고 KBO리그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타점왕도 차지했다.

박병호는 2012년 105타점, 2013년 117타점, 2014년 124타점, 2015년 146타점을 올렸다. 2015년 기록한 146타점은 역대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이다. 종이리 부상으로 한 달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박병호는 올 시즌 90타점 이상을 기록 중인 선수 중 유일하게 경기당 평균 타점 1.00개를 넘겼다. 박병호의 경기당 평균 타점은 1.03개다.

박병호는 35홈런을 기록해 홈런 1위를 질주 중인 제이미 로맥(SK와 이인성·37개)을 2개 차로 추격했다.

이대호는 2009년 100타점을 올려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타점을 기록했고, 2010년 133타점, 2011년 113타점을 수확했다. 지난해 KBO리그에 복귀한 이대호는 복귀 첫 해에도 타점 111개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달 2일 광주 KIA전에서 통산 16번째로 1000타점 고지를 밟기도 했다.

뉴스

악플을 함성으로 바꾼 황의조 “살아있음을 느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전과 후가 가장 다른 축구선수는 아마도 황의조(26·잠바 오사카)일 것이다.

근거 없는 인맥 발탁 논란, 악성 댓글에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지금은 ‘신(갓·God)’을 의미하는 ‘갓의

살아있음을 느껴’

는 김 감독과 황의조를 향한 악성 댓글이 넘쳤다.

“손흥민(토트넘), 이승우(베르나), 황희찬(함부르크) 등 유럽에서 뛰는 공격수들의 합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늦어질 우려가 있어 조별리그에서 황의조가 필요하다”는 김 감독의 설명에도 여론은 바뀌지 않았다.

황의조는 올해 일본 J리그에서 14골(정규리그 9골)을 기록 중이다. 소속팀 잠바 오사카의 차출 반대가 심했다. 김 감독이 구단을 어렵게 설득해 데려왔지만 부정적인 시선은 실력으로 잠재우는 수밖에 없었다.

황의조는 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9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끌었다. 와일드카드(24세 이상 선수)의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아시안게임 활약을 본 신임 파울루 벤투(49) A대표팀 감독은 황의조를 불렀고 7일 고양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21분 교체로 투입해 테스트했다.

장내アナ운서가 황의조를 소개하자 3만8000여명 관중들은 엄청난 함성을 보냈다. 손흥민, 이승우,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뒤지지 않았다.

황의조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함성소리를 받으면서 들어가니까 힘이 많이 났다. 그라운드에서 서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주역...9골 득점 1위
 대회 전 악플 세례 “기사·댓글 안 보고 감독님, 선수들만 생각”

조’, ‘빛이 난다’는 뜻의 ‘갓의조’로 찬양받고 있다.

황의조는 김희범(58) 감독이 아시안게임 최종엔트리 20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성남FC 시절 김 감독과 인연, 인맥 때문에 뽑힌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넷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파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